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

-WCC 제11차 총회 한국 동행모임 개회 예배 자료-

<자료1> WCC 총회 소개 동영상 번역문

“A Journey of Faith” The Assemblie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신앙의 여정”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역대 총회

An assembly is the governing bod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 worldwide fellowship of Christian churches in which representatives of the hundreds of member churches identified goals. The Council and its partners will pursue together until the next assembly.

총회는 WCC 의 치리회 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회원 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WCC 총회는 목표를 정합니다. WCC 총회와 협력기관들은 다음 총회까지 (그 목표를) 함께 추구합니다.

It has been said that each of the 10 assemblies since the council came into being in 1948 has presented the opportunity for the WCC to reconstitute itself.

1948 년 협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10 번의 총회는 WCC 가 스스로 다시 새로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1 차 암스테르담 총회: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The council existed for ten years in process of formation before its first assembly was held in war-ravaged Amsterdam in August 1948. The state of theme of this postwar assembly was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WCC 총회는 1948 년 8 월 전쟁으로 황폐해진 암스테르담에서 첫 번째 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10 년 동안 총회 설립(형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전후(post-war) 총회의 주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이었습니다.

Geoffrey Fisher, Archbishop of Canterbury

By the vote, which were just give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s constituted and established.

방금 진행된 투표로, WCC 가 구성되고 설립되었습니다.

제 2 차 에반스톤 총회(1954): “그리스도-세상의 소망”(Christ-The Hope of the World)

By the time of the second assembly held in the US state of Illinois, the cold war between East and West was nearing its height. A clear concern for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led to discussion of the church's role in forming a responsible Society.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제 2 차 총회 당시 동서 냉전은 절정에 다 달았습니다. 개발과 인권에 대한 분명한 관심은 책임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 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제 3 차 뉴델리 총회(1961):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빛”(Jesus Christ-The Light of the World)

Still more churches from the global South joined the WCC in time for the New Delhi assembly in 1961, the first such gathering to convene outside Europe or North America. For the first time, Orthodox churches from Eastern Europe were presented at the assembly.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인 1961 년 뉴델리 총회에 맞춰 세계 남반구(global South)의 많은 교회들이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유럽의 정교회가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제 4 차 읍살라 총회(1968):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Behold, I Make All Things New)

The 4th assembly at Uppsala had as its theme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Martin Luther King Jr. was to have delivered the opening sermon at Uppsala, but he was assassinated in the spring while campaigning for the poor.

읍살라에서 열린 제 4 차 총회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읍살라 총회에서 개회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그 해 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제 5 차 나이로비 총회(1975):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Jesus Christ Frees and Unites)

“Jesus Christ Frees and Unites”. Liberation and unity forms the themes of the 5th assembly in Nairobi, the first to be held in Africa. The assembly exploded dialogue among proponents of Christian theology from different traditions.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해방과 일치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 5 차 나이로비 총회의 주제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다른 전통의 기독교 신학자들 간에 대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제 6 차 밴쿠버 총회(1983):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생명”(Jesus Christ-The Life of the World)

Indigenous members of the first nations of Canada presented a traditional totem to the 6th assembly in Vancouver. And diverse cultures of Canada made a strong impact on the ambiance and atmosphere of the event. Light throughout God's good creation was central to the theme. “Jesus Christ-The Life of the World”.

캐나다 최초 국가의 원주민들은 제 6 차 밴쿠버 총회에 전통 토템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는 행사의 활기찬 분위기를 내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 가운데 나타난 빛은 총회 주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생명”

제 7 차 캔버라 총회(1991):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Come, Holy Spirit-Renew the Whole Creation)

The first Gulf War broke out just three weeks before the 7th assembly was convened in Canberra, Australia. The theme of the assembly stressed the bond between nature and the work of the Holy Trinity. “Come, Holy Spirit-Renew the Whole Creation”

첫 번째 걸프전은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기로 한 제 7 차 총회가 열리기 불과 3 주 전에 발발했습니다. 총회 주제는 자연과 성령의 역사의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제 8 차 하라레 총회(1998): “하나님께 돌아가자, 소망 중에 기뻐하자”(Turn to God-Rejoice in Hope)

To mark the WCC's 50th Anniversary the eighth's assembly met in southern Africa in Zimbabwe, with the list of speakers included former South African president Nelson Mandela.

WCC 창립 5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 8 차 총회는 짐바브웨의 남부 아프리카에서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대통령을 포함한 연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Nelson Mandela, Former South African President

To us in South and Southern Africa, and indeed the entire continent, the WCC has always been known as a champion of the oppressed and exploited.

남아공과 남아프리카 그리고 전 대륙에 있는 우리들에게 WCC 는 항상 억압 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챔피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Harare introduced to new dimension to WCC assemblies, the marketplace of ideas. In Harare it was called a *Podiatry*, the Shona word for meeting place or Center of community. Porto Alegre within employ its local term *Mutirao*.

하라레 총회는 아이디어 시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WCC 총회에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라레에서는 만남의 장소 또는 커뮤니티 센터를 가리키는 쇼나어(the Shona word) 파다레(Podiatry)라고 불리었습니다.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현지어인 무티라우(Mutirao)를 사용했습니다.

제 9 차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2006):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

In the message of the 9th assembly Christians in Porto Alegre observe that we are made aware by assembly participants of crimes arising daily and their home countries and regions due to disasters, violent conflicts and conditions of oppression and suffering. Yet we are also empowered by God to bear witness to transformation in personal lives, churches, societies, and the world as a whole.

제 9 차 총회의 성명에서 포르토 알레그레의 그리스도인들은 총회 참석자들을 통해 재난, 폭력적인 갈등, 억압과 고통의 조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상과 조국 그리고 지역(regions)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개인의 삶, 교회,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변화를 증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제 10 차 부산 총회(2013):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The 10th and the most recen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ook place at Busan, Korea, in the autumn of 2013. The potential for new of the ecumenical movement was reflected in the theme of the assembly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The theme emerged out of the historical faith pilgrimage of the church, and in Busan it was resonated across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o the Shanty towns and villages and cities throughout Asia. It gave the WCC fellowship of the churches a renewed sense of the churches prophetic role in the world today.

가장 최근인 제 10 차 총회는 2013 년 가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의 잠재력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총회 주제에 잘 반영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교회의 역사적인 신앙의 순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생명의 외침은 분단된 한반도를 가로 질러 아시아 전역의 산속 마을과 도시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WCC 가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2> 인사말 번역문

Greetings, Rev. Martin Robra, Assembly Consultant to the Acting General Secretary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인도하신다!”

Dear colleagues and friends,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친애하는 동료와 친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I greet you all with the theme of the forthcoming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2022 in Karlsruhe. I want to thank Professor Hyunju Bae, our Asia president Rev. Sang Chang and the leadership of the ecumenical gathering to prepare for this assembly for the invitation to address you all at this special occasion. I am always grateful to Professor Hyunju Bae for her support and collegial accompaniment on our way to the tenth assembly 2013 in Busan and her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cumenical movement as member of the WCC Executive Committee.

2022년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리는 WCC 제11차 총회 주제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특별한 모임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WCC 중앙위원 배현주 교수님과 WCC 아시아 지역 의장 장상 목사님 그리고 에큐메니칼 모임의 지도자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항상 배현주 교수님이 2013년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해 애써 주신 연대와 지원 그리고 WCC 중앙위원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We gathered in Busan with the prayer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The assembly translated this prayer into action with the call to Christians and all people of good will to join in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This ecumenical journey which started in Busan will bring us together to Karlsruhe with nine years of experiences of God’s transforming work.

우리는 부산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주제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산총회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동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이 에큐메니칼 순례는 지난 9년 간의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와 함께 우리 모두를 카를스루로 이끌 것입니다.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offered tremendous occasions for ecumenical solidarity and mutual accompaniment. The last one and a half year, the COVID - 19 crises reinforced the lessons learned all along the journey about the scandal of growing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racism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We see the same people who are already impoverished and pushed to the margins suffering the most. The pandemic is teaching us to become even mo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human beings belong to God's creation and suffer with all creatures and the earth if the relationships toward all life and towards each other are not treated with utmost care.

정의와 평화의 순례는 에큐메니칼 연대와 상호 간의 동행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의 위기는 점점 커지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인종 차별과 다른 형태의 차별과 관련하여 정의와 평화의 순례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강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핍(빈곤)되고, 가장 고통의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봅니다. 이 전염병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더 민감하게 받아 드리고, 모든 또는 서로 간의 관계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과 지구와 함께 고통 받는 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My theologies as a German theologian were challenged from the first day of working with the WCC until today. The journey of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however, has shown to me even more clearly the imperative of overcoming the heritage of colonialism, white supremacy and racism in our theologie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hurches.

독일 신학자로서 저의 신학은 WCC와 일한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여정은 우리의 신학과 교회들 간의 관계에서 식민주의,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의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What keeps us going then, is to concentrate on the essential of the Christian message in the midst of sin and the brokenness of our world: God's love incarnate and made manifest in Jesus Christ. The same love of God is revealed in Christ's deep compassion for the suffering (Mt 9:35 ff.) and the power of the

crucified and risen Christ, in whom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are reconciled with God (Col 1:19f., Eph 1:10).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죄와 세상의 깨짐(brokenness) 가운데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은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깊은 연민(마 9:35)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골 1:19, 엡 1:10)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God's love finds its purpose in God's reign of justice and peace. Transforming discipleship is our mission as Christians. In Busan we invited each other and all people of good will to embark together on the journey of justice and peace. Today, people of other faiths who are our companions on the way want to know what compels us Christians and why they can trust us and our commitment to continue this journey with them. It is not Christian arrogance or ignorance of the diverse faiths of this world, when we point to the heart of our hope and faith, to Christ's love that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통치에서 목적을 찾습니다. 변화하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산총회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선의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강요하는 이유와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중심을 가리킬 때,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다양한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오만이나 무지가 아닙니다.

Thank you all for coming together for this worship inaugurating the Korean accompaniment group for the 11th assembly of the WCC. You will enrich and deepen the reflections on the assembly theme with your contributions! May God bless you all as you are committed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ecumenical movement through your witness and action!

제11차 총회를 위한 한국 동행 모임의 개회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공로로 이번 총회 주제에 대한 성찰을 풍성하고, 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언과 행동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